



전주로타리클럽, 우수 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로타리클럽(회장 임규삼)은 지난 28일 전주공립고등학교를 방문해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고 있는 6명에게 전달했다.  
임규삼 회장은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홍화 교장은 "본교 학생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꿈을 펼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로타리3670지구 전주로타리클럽은 1957년 창립해 지역 사회 소외된 계층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봉사단체다. /장은성 기자



남원춘향로타리클럽 난방유 쿠폰 전달

남원시 주민복지과는 남원춘향로타리클럽이 시정을 방문해 난방유 쿠폰(150만원)을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 5가구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은 김미영 남원춘향로타리클럽 회장과 정일석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미영 클럽 회장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뜻깊은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에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추운 겨울 취약계층을 생각하는 회원들의 마음이 매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남원시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곳곳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동참 잇따라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는 시민과 기업이 줄을 이으며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금동에서는 28일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남원시 사랑상품권(1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백면 21개소 마을에서는 총 688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해 주었고, 사회복자법인 햇빛(대표 최규순) 100만원, 영광포인트(대표 현재근) 20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덕과면에서는 남원시 상교동의 코오롱스포츠 대표 김병근(가)가 지난 27일 덕과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백미 100kg을 기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 명가김민주 사장, 장학금·이웃돕기 성금 기탁

무주명가 김민주 사장이 28일 장학금 1백만 원과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을 무주군에 기탁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김민주 사장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 기탁을 하게 됐다"라며 "군민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무주명가는 무주읍 소재 식당으로 해마다 어려운 이웃과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양오봉 전북대 총장, 공학한림원 회원 선정

혁신적 기술로 국가발전 기여한 전문가 10개월의 엄격한 심사로 선정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국내 공학기술 분야 석학들이 모인 최고 권위의 단체인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에 선정됐다고 28일 전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학계와 산업계 및 국가기관 등에서 공학기술 발전에 현격한 공적을 세운 우수 공학기술인을 발굴·유



대하는 학술 연구기관으로 엄격한 절차를 통해 회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 대학, 기관(연구소) 등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와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전문가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10개월 간의 다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에 따르면 화학생물공학 부문에 선정된 양 총장은 1995년 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로 부임해 28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시스템 분야의 교육 및 연구에 매진해 SCI 논문 116편을 포함해 모두 140편의 논문을 국내외 우수 학술지에 게재했고, 25건의 특허등록과 234편의 학술발표, 화학공학 및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8편의 저서 및 번역서를 저술했다.  
또한 교육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용대학 사업-에너지산업 분야에 서울대와 고려대

등 7개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 전북대 사업단장을 맡아 관련 분야 인재양성과 발전에 기여해왔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에너지융합대학원 사업'을 통해 에너지-AI융합대학원을 설치해 우리나라 최첨단 에너지-인공지능 융합교육을 통한 석·박사 양성의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을 이끌어 학생중심 대학과 지역 상생, 글로벌 허브 대학 실현을 위한 전북대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 외에도 새만금위원회 위원으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연구 개발 지원에 기여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에너지경제연구위원과 환경정책평가위원의 정책과 연구 방향제시를 통해 화공생물,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연구 지원을 넓히는데도 공헌했다.  
양오봉 총장은 "영예로운 한국공학한림원 회원이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공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발전과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기자



세미한병원 임직원, 김제시 고향사랑 5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8일 백구면에 소재한 세미한병원(이사장곽성주)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곽성주 성인의료재단 이사장은 세미한병원 임직원을 대표하여 "연말을 맞아 지역을 위한 뜻 깊은 일에 참여하고자 병원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고령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의 사정을 보살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미한병원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과 실상병원 지정 등 인적교류는 물론, 시설·차원 공유로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세미한병원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김제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이 부응할 수 있도록 김제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연말을 맞아 이번 세미한병원 임직원 등의 동참과 출향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금 첫해에 고향사랑기부금이 6억원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봉동초 100주년 기념 제막식 개최

봉동초등학교(교장 장남덕)는 지난 28일 본교 운동장에서 100주년 기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에는 정행식 봉동초 운영위원장과 장남덕 교장, 동문, 지역주민 등 100여 명과, 2023학년도 100회 졸업생을 앞둔 6학년 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다.  
봉동초는 1923년 5월 19일 공립보통학교 4년제로 개교한 후(1992년 3월 1일 양화분교장을 설치) 지금까지 1만5,89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정행식 학교운영위원장은 "100주년에 함께해 준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후의 100년, 200년을 위해 여러 동문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남덕 교장은 "知·德·體 조화로운 인재 양성이란 교훈 아래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자"며 "기념비에 새겨진 글씨처럼 '봉동의 100년'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아이들과 함께 힘차게 내딛을 수 있도록 열정과 사랑으로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김오식 명일 대표, 진안군 고향사랑 300만원 기탁

진안군은 (주)명일 김오식 대표가 28일 군수실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진안을 출신으로,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에 위치한 산업용 특수물 제작 전문업체 (주)명일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김 대표는 "연말을 맞아 고향 진안을 응원하기 위해 고향 사랑기부금 결심하게 됐다"고 말하며,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진안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평소 어려운 이웃돕기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 및 나눔문화 확산에 남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김 대표는 지역사회에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해주신 김오식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소중한 기부금은 가장 뜻깊은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 새해맞이 치즈 떡국 무료 나눔

임실군이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에서 2024년 1월 1일 오전 7~9시까지 성수산을 찾는 캠핑객들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갑진년(甲辰年) 새해맞이 임실치즈두부떡국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10월 20일 개장한 왕의숲 캠핑장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최근 아웃도어 여행트렌드에 힘입어 캠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성수산 왕의숲 캠핑장은 오토캠핑장(14면), 카라반(6동), 캐빈하우스(4동) 규모로 주차장, 개수대, 화장실, 샤워실 등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캠핑장 이용여약은 홈페이지(<https://임실성수산왕의숲국민여가캠핑장.com>)에서 할 수 있다.  
캠핑장 위탁운영을 맡은 두산업업(유) 황중하 대표는 "지난 10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많은 방문객이 캠핑장을 찾아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캠핑 가족들의 건강과 사색 소망이 모두 이뤄지길 바라고,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성수산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도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떡국 무료 나눔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무주군, 전북공동모금회 사업비 저소득 세대 지원

무주군은 28일 전북공동모금회(대표 김동수)로부터 배분 사업비 1천 2백여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배분받은 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포함 중위소득 100% 이내 저소득 53세대에 세대당 20만 원씩 총 1천 60만 원이 사용되며, 무주솔로몬지역아동센터와 무주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무주나눔지역아동센터 등 3곳에도 월동 난방비(1곳당 50만 원, 총 180만 원)가 지원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배분받은 사업비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시설에 잘 전달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모아진 기금이 무주군에서도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경찰, 연말연시 특별방범 치안활동

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 동봉지구대(대장 황인용)는 평온한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 및 민생차안 확보를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을 주력하고 있다.  
특히, 관내 금은방 금융기관, 편의점 등 현금 다액취급 업소 및 무인점포를 방문해 CCTV 및 비상벨 작동상태, 기계 경비 기압 여부, 여성 1인 근무업소 확인, 사각지대 점검 등 면밀히 진단하고 관리자와 시설주를 상대로 최근 유행하는 범죄 유형과 대처요령을 홍보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단력순찰 및 거점근무 지점을 설정해 범죄 취약사각지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황인용 동봉지구대장은 "연말연시 우려되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 주민 안전확보 및 평온한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송용우 에이원스페이스 부사장, 순창군 고향사랑 기탁

순창군은 28일 (주)에이원스페이스 송용우 부사장이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군에서 두구장을 제조·시공하는 전문기업 (주)에이원스페이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용우 부사장은 출신지인 순창군이 아님에도 지인들과의 잦은 교류와 방문으로 고향처럼 여기게 되어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혀 훈훈함을 더했다.  
송용우 부사장은 "순창군에 자주 방문하고 지인들과 교류하며 받은 사랑과 정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한다"며 "순창군 발전을 항상 응원하며 앞으로도 도울 수 있는 일에 먼저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고 기부에 동참해 주신 송용우 부사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순창군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순창=이영원기자